

# 맞춤형 교육 추진...지역 SW융합 창의인재 육성

### 전남진흥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강사 발대식 섬마을 등 정보 소외지역 '찾아가는 AI 교육' 실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전문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전남지역 내 정보 소외 지역 AI·SW 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강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SW강사 5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업 설명과 교육 현장 견학 수렴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올해 전남 SW미래채움 강사들은 12월 까지 교재·교구 지원과 함께 도내 청소년

과 섬마을·특수학교 등 정보 소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AI·SW 코딩 교실 교육, 지역 축제 연계 AI·SW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역 거점 센터를 기반으로 한 아카데미, 캠프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중심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윤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8차년도 사업을 맞아 AI+X 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AI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SW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남 SW미래채움 강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SW융합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이 추진 중인 '전남 SW 미래채움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남도 내 정보 소외지역 9만3805명의 학생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전문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들 대상으로 AI·SW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교육 격차 해소와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또 지역 내 SW 전문강사 267명을 양성

함으로써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걷기 챌린지로 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 기부

### 4월 한달 'Run-Up' 캠페인...임직원 243명 참여 3506만보 달성...당초 목표 걸음보다 117% 초과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들의 걸음을 모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임직원 참여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Run-Up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초 누적 걸음 수 3000만 보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나, 임직원 243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3506만여 보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11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표 달성에 따라 공사는 지난 29일 서구 화운로에 위치한 '참좋은지역아동센

터'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 대상은 어린이날 취지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까지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도시공사 김승남 사장은 "직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은 정성이 지역 내 사회 보호계층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임직원 참여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Run-Up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광주도시공사 김승남 사장은 "직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은 정성이 지역 내 사회 보호계층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농협 광주본부 5월 2일 '오이데이'를 맞아 최근 본부 앞마당에서 지역 오이 생산 농가를 돕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전을 열었다.

## 농협 광주본부, '오이데이' 장터 기획전 오이 시식·할인 행사·이벤트 등 호응

농협 광주본부는 5월 2일 '오이데이'를 맞아 최근 본부 앞마당에서 지역 오이 생산 농가를 돕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숫자 '5'와 '2'의 발음이 '오이'와 유사한 데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이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이 시식 행사와 함께 장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정 이벤트, 할인 판매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유익한 건강 식품"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아삭한 오이와 함께 활기찬 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앞으로도 계절 농산물에 맞춘 다양한 '데이(Day) 마케팅'과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 HD현대1%나눔재단, 어린이날 맞아 아동 선물세트 '쾌척'

### 2700만원 상당 후원...영암·목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HD현대상호는 최근 영암 전남농업박물관에서 열린 '104회 어린이날 선물 전달식'에서 회사 임직원과 영암군·목포시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00만원 상당의 종합과자선물세트를 후원했다.

지역아동센터 57개소 14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 선물세트는 HD현대 1%나눔재단의 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날 주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로서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HD현대상호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HD현대상호는 최근 영암 전남농업박물관에서 열린 '104회 어린이날 선물 전달식'에서 회사 임직원과 영암군·목포시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00만원 상당의 종합과자선물세트를 후원했다.



여수국가산단내 남해화학 사회봉사단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동행발리지를 찾아 차량 세차 봉사 활동을 펼쳤다.

## 남해화학, 장애인시설 차량 세차 봉사

### "입주자 안전한 이동 지원"

여수국가산단내 남해화학 사회봉사단이 장애인거주시설 동행발리지를 찾아 차량 세차 봉사활동을 펼쳤다.

3일 남해화학에 따르면 전남 동행발리지에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 차량 4대에 대한 세차 및 내부 청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황준구 부사장과 정병권 노조위원장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은 스타레스와 스타리아 등 차량 외부 세척은 물론 내부 청소와 오염 제거, 미세 흡입 관리까지 실시했다. 세차에 필요한 용품 역시 직접 준비해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8년 개소한 동행발리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파트형 장애인거주시설로, 중증 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입주자의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해 차량 이용 빈도가 높아,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오 동행발리지 원장은 "입주자 이동에 담당하는 차량이 쾌적해져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황준구 부사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화학 사회봉사단은 약 5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조직으로, 동행발리지를 비롯해 가나현, 예리고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김경원 곡성 춘원목장 대표

## 전남목장형유가공연구회장에 김경원 대표 취임

### 현장 중심 유가공 기술 교류...낙농가 소득 증대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낙농가 소득 증대와 유가공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목장형유가공연구회' 신임 회장으로 김경원 대표(곡성 춘원목장)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경원 회장은 전남 곡성에서 춘원목장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낙농업에 종사해 온 현장 전문가로, 그간 회원 농가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해 왔다.

김 회장은 "낙농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유가공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노하우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목장형유가공연구회는 지난 2008년 결성된 단체로, 전남 지역 젓소 사육 농가들이 참여해 치즈, 요거트 등 목장형 유가공품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수입 유제품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층 교육과 산업 동향 공유를 통해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박인규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로 지역 낙농 발전에 기여해 온 연구회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